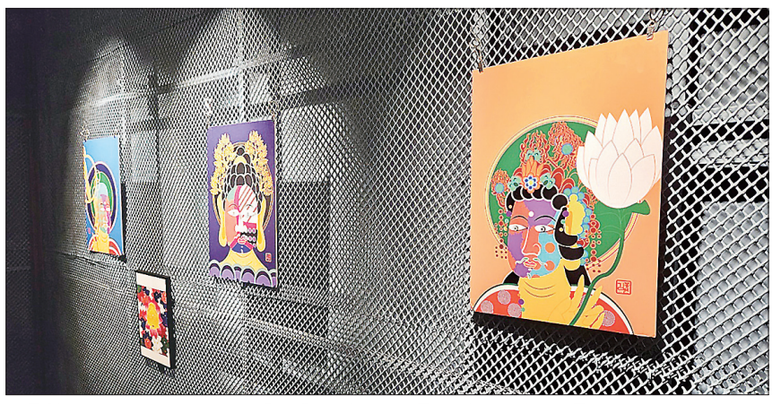
“휴머니즘 담긴 불교 작품으로 우직하게”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⑥ 김동현 불교 일러스트 작가

학부 시절, 교수 추천으로
불교 일러스트 세계로 입문
현대적 풀어낸 작품 입소문
전문 작가 활동…전시까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김동현 작가의 일러스트에는 자유로운 발상에서 비롯된 재미와 휴머니즘이 담겼다.



자신의 작품 앞에 선 김동현 작가.

김동현 작가 작품 살펴보기

■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doridongs_illust

“불교를 기반으로 한 휴머니즘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싶어요.”

모자를 쓰고 있는 보살, 폭죽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최근 불교계에서 ‘좀 뜬다’고 입소문이 난 김동현 불교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들에는 팝아트를 보는 듯한 자유로운 발상이 가득하다.

“불교미술을 공부하며 처음 티베트 탕카를 보았는데 무서운 화풍임에도 익살스럽게 느껴지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후 신중도를 접하면서 수많은 소재들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이를 현대적으로 풀이, 나만의 무언가를 담아야겠다 생각했지요.”

김 작가가 처음부터 불교 일러스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며 민화를 베이스로 작업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교수가 그에게 불교 일러스트 작업을 제안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김 작가는 그때부터 불교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불화 속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 많은 이야기를 그림 한 장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느꼈다는 김 작가는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게 불교를 표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작품을 본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퀄리티를 떠나 주제 자체가 생소했고 거기에 재미와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현 작가는 거기서 쾌감을 느꼈다. 사람들이 자신이 작품에서 재미를 느끼고 나아가 불교의 매력에 빠져들었으면 좋겠다는 발원으로 불교 일러스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점차 작품을 알아보는 한 독지가가 생겼고 의뢰를 받아 제작한 작품들이 지역의 한 카페를 장식하기도 했다. 작품을 알아보고 꾸준히 구매해주는 불자들은 작가로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한계를 느꼈다. 불화가 아니다보니 불교계에서 큰 수요가 없었고, 외부활동에서도 제약이 많았다. 종교색이 있는 일러스트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앞으로의 작품을 고민하던 터에 불교크리에이터 모집 공고를 봤다.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위촉되면서 인정받았다는 마음이 크다. 이후 좋은 일도 이어져 최근 서울 홍익대 인근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신작 15점을 비롯해 각종 수상작품 등 30여 점이 전시됐다.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상상했던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이미지에 담은 작품들이 주를 이뤘기에 뜻깊다.

함께 위촉된 크리에이터 4기들과의 템플스테이도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1박 2일 동안 작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림에 대한 조언을 나눌 수 있었고, 각기 다른 콘텐츠를 공유하며 스스로 시야도 넓어졌다. 앞으로의 작품에 대한 용기를 얻은 것은 덤이다.

김동현 작가는 불교가 더욱 사랑받는 종교가 되길 희망한다.

“불교는 젊은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죠. 불교가 좀 더 대중에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제 작품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동현 작가는 현재 ‘태산(太山)’이라는 아호로 활동 중이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아호에는 ‘큰 산처럼 우직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담겼다. 그는 “우직하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불교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단장, 조계종 13대 포교사단장 연임

포교사단, 10월 14일 선거 실시
대의원 344명 중 297명 참여
서울 등 13개 지역단장도 선출



조계종 포교사단이 10월 14일 실시한 13대 포교사단장 및 지역단장 선거에서 김영석 단장이 연임됐다.〈사진〉 김영석 단장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3개 지역단에서 동시 실시된 이번 선거에는 대의원 344명 중 297명이 참석, 86.3%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에서 김영석 단장은 190표를 획득, 연임을 확정했다.

김영석 단장은 “포교활동력 강화 지원과 포교사위상 강화 및 자부심 고양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교사단은 지역단장 선출도 마무리했다. 서울, 광주전남, 인천경기 지역단장은 복수출마로 선거가 실시됐으며 나머지는 단독 출마자는 무투표 당선됐다. 임은호 기자

신계사 복원 16주년 기념 ‘e-book’ 사진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계종·민추본 홈페이지 공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민추본)가 금강산 신계사 복원 16주년을 기념해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e-book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은 조계종과 민추본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진전은 1부와 2부로 나눠 구성됐다. 1부는 ‘금강산 4대 사찰’을 주제로 전쟁으로 소실된 유점사, 장안사의 과거 모습과 신계사의 복원 공사 이전 모습이 흑백사진으로 소개된다. 유일하게 전쟁의 포화를 피해 남아있는 표훈사의 과거와 현재도 비교해 감상할 수 있다.

표훈사 말사인 정양사와 보덕암의 과거와 현재도 함께 전시됐다. 정양사의 경우 한국전쟁으로 불탄 헐설루, 나한전, 영산전의 옛 모습과 전화(戰禍)를 피해 현재까지 남은 반야보전과 약사전을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정양사 약사전은 전쟁 이후 보수 과정에서 처마 밑기둥들이 없어지고, 문틀이 바뀌는 등 원형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전 2부는 ‘신계사 복원’을 주제로 착공식부터 준공식까지 복원 과정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 전시했다. 복원 공사 이전인 2001년 3월 복원기원법회부터 남북 불교계의 실무회담, 복원된 이후 신계사를 찾은 남측 불자들의 모습까지 현장감 있는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다. 김내영 기자

“성철 스님 법향 여전히”

성철사상硏, 10월 14일 학술대회
퇴옹학술상에 도민 스님·신광희



성철 스님 원적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수행과 가르침을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성철사상연구원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10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 학술대회 및 제6회 퇴옹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학술대회는 성철 스님과 함께한 시간을 회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첫 만남을 떠올린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1971년 백련암에서 3천배를 하고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충만했다”면서 “그날 이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불기자심의 가르침은 좌우명이 됐고, 50년 풍상을 이어주는 견고한 법연의 고리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성철 큰스님의 거룩한 법향 속에 깨달음의 열매가 영그는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6회 퇴옹학술상 시상식도 열렸다. 수상자로는 교리부문에서 동학사승가대학 교수 도민 스님이 ‘마하빠자빠띠의 출가와 비구니교단의 성립-팔경법 성립을 중심으로’로, 응용부문에는 신광희 동국대 연구교수가 ‘현재 심사정 필 〈보납도〉 연구’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은호 기자

“‘코쟁이’에게 귀 기울여준 구산 스님”

보조사상硏, 10월 13일 법련사서
열반 40주기 국제학술대회 개최



조계총림 송광사 초대 방장 구산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삶과 수행을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이병욱)은 10월 13일 서울 법련사 3층 대웅보전에서 ‘한국불교 대중화에 끼친 구산 스님의 영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국내 학자들뿐 아니라 세계적인 불교학자 로버트 버스웰 교수 등 구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들도 직접 참가, 삶과 가르침을 조명했다.

특히 코펜하겐대 도리트 바그너 씨는 구산 스님과 1977~1983년 주고 받은 서신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서신에는 어려움을 견뎌내어 소망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 성실히 마음을 살펴 마음의 밝은 빛을 볼 것 등에 대한 가르침이 담겼다.

독일 보훔대 헨릭 소렌센 씨는 1982년 코펜하겐에서 선수행 마지막 날, 스님의 연설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구산 스님은 능력 있고 일에 몰두하는 스승이며 자기 자신에게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우리의 질문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건 또는 심각한 것이건 간에 우리 코쟁이들에게 항상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임은호 기자

“불광 49주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잠실 불광사, 불광 창립 49주년 기념법회 봉행

잠실 불광사가 불광 창립 49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불광사(주지 동명)는 10월 14일 경내 불광사 보광당에서 ‘불광 창립 4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광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동명 스님은 “49년을 맞이한 불광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할 수 있다”면서 “광덕 큰스님의 불광창립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불광운동을 펼치신 근본정신과 뜻을 우리 시대에 맞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도수행, 법회활성화, 교육사업 증진,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 등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로 나선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은 불광 대중의 화합을 당부했다. 이어 불광사 대중들은 불광 창립 발원문을 부처님전에 봉독해 올렸으며, 기념 축하공연으로 파라미타합창단의 찬탄곡 ‘백만송이 장미’ 음성공양 등이 이어졌다. 또한, 수행 정진과 봉사로 헌신한 모범 신도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범 어 사 지 유 대종사
주 지 보 운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051)508-3122